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적기업의 특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분석

김진섭^{1*}

¹부산대학교 경영학부

Analysis of Vulnerable Cooperation in Internal Control System on Characteristics and Earning Management

Jin-Sep Kim^{1*}

¹Division of Management and Accounting, Pusa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회계부정 등 내부통제의 부실로 인한 외부 정보이용자들과 자본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방안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실태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시행에 따른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적인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비교적 회계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지적기업과 표준보고를 한 기업의 발생액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이익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특성지표 중 코스피시장의 경우는 유동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부분적으로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가설도 재량적발생액의 경우 지적기업이 비지적기업보다 더 크게 나옴으로써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Earning management in Vulnerable Cooperation .During research period 2005~2007,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whether financial characteristics has exist or not. Second, Earning management also. As a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has found explanatory with stastical significance about *CURRENT*, *RNPS*, and *DEPT*. Second, *DA of Vulnerable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cooperation.

Key Words : Internal control system. Earning management

1. 서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회계투명성은 기업경영 투명성확보의 전제조건과 같은 역할을 하며 외부정보이용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론과 워드콤 사건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신뢰도 하락에 대하여 사베인즈 옥슬리 법안과 같은 회계투명성 확보방안들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사태를 겪은 후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도입, 감사기준의 개정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용 및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3년 관련 인증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모범규준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써 감사인은 감사대상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발견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검토범위를 제한받았다면 이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취약사항이나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보고서 상에 지적되는 기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내부통제에 일부분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취약성은 또한 기업의 재무적인 결과와 재무제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의 취약점들은 이익조정의 가능성도 존

*교신저자 : 김진섭(kjinsep@pusan.ac.kr)

접수일 09년 05월 26일

수정일 09년 06월 12일

게재확정일 09년 06월 17일

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과 이익 조정여부를 검증해봄으로써 외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하여 검토해 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적을 받은 취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취약기업의 특성과 회계시스템통제의 취약성에 따른 이익조정여부에 관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실태와 기업특성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연구기간을 확장하며,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차후 활용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1장은 서론으로서 이론적인 근거와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서술하며, 2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 대하여 정리하며, 4장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대하여 해석한다. 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 및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제도 및 선행연구

2.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확보방안들과 시기를 같이하여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회계부정사건 이전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개념을 정의한 COSO보고서를 통하여 내부통제 모형을 정의 하였다. COSO보고서는 내부통제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유효성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법규의 준수라는 3가지의 범주에 있어서의 목표달성에 관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기업의 이사회, 경영자 및 기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는 내부자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일련의 체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가 기업의 내부회계위험에 대하여 자제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며,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이사회 또는 경영자와 같은 내부자에 의한 통제를 통하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감법에서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한 규정의 포함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

여 작성된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 금지,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내부회계관리자의 지령, 반기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이사회 및 감사보고, 감사위원회의 사업연도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및 평가보고서의 비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필요한 경영자의 준거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는데 준거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규정 성격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조치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이 모범규준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범규준의 목적은 국제적인 내부통제제도의 모형을 반영하면서 국내실정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각 기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모범규준의 적용대상기업은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 수반되는 비용 및 효익에 대한 분석을 하여 각각의 기업이 처한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관련된 위험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각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운영 및 평가에 적용되는 각각의 원칙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책임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은 중대한 위반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표명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도록 하여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감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감사의견표명에 따른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한 외감법에 의하면 경영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합리적 확신에 근거하여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제공하는 확신은 소극적 확신을 제공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검토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수행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문서를 확인·검토하고 문서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등 감사절차보다는 제한된 절차를 수행하여 그 결과 소극적인 확신을 검토보고서에 표명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

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내리는데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자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중요한 취약점뿐만 아니라 유의한 미비점에 대하여도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표명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검토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범위제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검토의견을 표명한다.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없다면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에 예외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는 반면, 중요한 검토범위 제한이 있었다면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거나 검토의견의 표명을 거절한다. 또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2 선행연구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내용 및 결과
성과 및 재무적특성	신현걸 (2007)	취약점의 유형별구분과 취약기업과 비취약기업 재무적특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명곤 외(2005)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의 질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Fronco et al(2005)	취약기업 공시 후 음의 수익률 발생
감사와 통제	Krishnam(2005)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취약성이 낮게 나타남
	Klein (200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이사회 규모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존재
	Hogan 외(2005)	취약기업의 감사보수가 더 높음

내부회계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초기에는 실태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신현걸(2007)[8]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서 취약점을 지적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 취약점의 유형별 구분

을 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기업의 재무적 특성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명곤 외(2005)[10]는 내부통제구조와 회계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였고, 그 결과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정보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Franco et al.(2005)[18]은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시장반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취약기업에 대한 공시 후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Bryan and Lilien(2005)[14]도 내부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이,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보다 성과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Ashbaugh 외(2005)[13]는 취약점 보고기업의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영업활동의 복잡성, 조직개편여부, 내부통제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들에게서 취약점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이외에 감사관련 연구로 Krishnam(2005)[21]은 감사위원회 품질과 통제의 취약성사이에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취약점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감사보수와 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Hogan 외(2005)[20]는 취약기업의 감사보수가 취약하지 않은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간의 연구가 있는데 조현우 외(2006)[12]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측면을 재량적발생액의 크기로 관리제도 시행전후를 비교한 결과 시행 이후연도가 재량적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신뢰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권수영과 이재은(2006)[5]은 시행 직 후에 관련정책과 규정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부통제 운용과 관련된 취약점이 많이 보고되었다.

3. 연구의 설계

3.1 가설의 설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여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명곤 외(2005)[10]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의 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anco et al(2005)[18]의 경우도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과 시장반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취약기업에 대한 공시 후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지적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업특성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 대리인문제는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사적이익추구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외부감사인제도 및 내부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는 내부감사제도 강화정책 중 하나이다.

Doyle 외(2006)[17]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의 경우 발생액과 현금흐름과의 관련성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신현걸(2007)[8]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일반 지적사항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비적정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적여부에 초점을 두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 지적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3.2 변수정의

본 연구에서는 차이분석을 위하여 t검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이익조정 크기차이 검증을 위하여 재무적 발생액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우선 기업특성 변수의 경우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순이익증가율, EVA를 사용한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재량적발생액은 수정존스모형을 사용한다. 총발생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발생액은 동종산업 모든 기업의 매출의 변화와 유형자산의 함수로서 측정된다.

$$TACC_t/A_{t-1} = \alpha_0(1/A_{t-1}) + \alpha_1(\Delta SALES_t/A_{t-1}) + \alpha_2(PPE_t/A_{t-1}) + \epsilon_t$$

TACC_t = t년도의 총발생액

A_{t-1} = t-1년도의 총자산

SALES_t = t년도의 매출액변화분

PPE_t = t년도의 유형자산총계

수정존스모형에서 비재량적발생액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지며, 매출액의 변화에서 외상매출의 변화를 차감함으로써 산출하였다.

$$NDA_t = \hat{\alpha}_0(1/A_{t-1}) + [\hat{\alpha}_1(\Delta SALES_t - \Delta REC_t)/A_{t-1}] + \hat{\alpha}_2(PPE_t/A_{t-1})$$

ΔREC_t : t년도 외상매출액의 변화

기업가치변수로서 EVA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세후 순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자본비용을 곱한 자본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3.3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검증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총 3년으로 설정하고,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에 지적사항 및 검토범위의 제한이 보고된 기업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③ KIS-Value II 수록기업

①, ②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와 관련하여 선정된 것이며, ③은 가설1의 기업특성변수와 관련된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기술통계

4.1.1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적현황

표 2은 연구기간동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적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사 결과, 코스피의 경우 2005년 10개를 시작으로 2006년 22개, 2007년에 6개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코스닥시장기업의 경우 2005년 29개, 2006년 54개, 2007년 58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적현황

구분	KOSPI			KOSDAQ			계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계
지적	10	22	6	29	54	58	39	76	64	179
비지적	583	629	633	819	847	896	1402	1476	1529	4407
계	593	651	639	848	901	954	1441	1552	1593	4586

[표 3] 기술통계량

	코스피				코스닥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적기업	$DEPT_{it}$	5.0	883.0	179.3	200.6	0	762.67	139.81	146.18
	$CURRENT_{it}$	16.16	425.4	144.4	100.7	5.211	850.74	177.11	158.32
	$RNPS_{it}$	-1217.32	60.838	-138.400	16.2597	-408.13	27.92	-58.13	72.988
	$GRNI_{it}$	-1569.165	2338.82	150.2296	533.9025	-10160	5978.72	15.07	1747.566
	EVA_{it}	-23629372859	265989385058	3675492877	44483322	-29391866648	64577161857	-178897206	961695
비지적기업	$DEPT_{it}$	0	884	134	168.8	1.16	785	79.9	97.78
	$CURRENT_{it}$	0.637	674.312	193.22	168.09	3.89	982.13	264.41	207.53
	$RNPS_{it}$	-415.32	11.96	-61.018	84.74	-782.47	50.59	-24.47	76.097
	$GRNI_{it}$	-6300.87	16141.08	170.68	1643.6	-41360.29	9670/05	-116.056	2486/678
	EVA_{it}	-62683626	110043979612	1366127108.97	17430002	-26671811122	38058092	-745608094.08	5208184678.5

비지적기업은 코스피시장기업의 경우 2005년 583개, 2006년 629개, 2007년 633개. 코스닥시장기업은 2005년 819개, 2006년 847개, 2007년 896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조사과정에서 코스피시장기업의 경우 내부회계통제제도의 수립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고, 코스닥시장기업의 경우는 통제제도 정비와 수립 대응이 조금 늦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지적기업 중 검토범위 제한 기업에 관한 사항이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2005년 29개, 2006년 54개, 2007년 58개로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검토 범위 제한에 의한 영향 이라는 것이다. 코스피기업의 경우와 이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코스닥기업의 경우도 빠른 속도로 비지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적기업의 수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관련제도 보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본기업의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앞에서 언급한 자료의 미제출을 들 수 있다.

미제출로 인한 의견표명의 거절의견이 표명되어 있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는 재무자료 수집과정 및 통제절차의 취약이다. 현금계정 또는 매출채권과 관련된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고자산 등 자산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검증절차의 불확실 또는 미비가 많았다. 유동자산은 타 자산에 비하여 고위험이 높은 자산이다. 이러한 유동자산의 관리와 통제절차가 미약하다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재무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기타 재무제표작성 관련 취약점은 자료수집과정불분명, 결산과정 통제절차 취약, 본지점회계처리의 불분명 등이 있다. 인사 관련 지적사항에는 내부감사가 비상근 이사회 감사도 겸임하는 경우와 감사가 재정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기업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외부정보이용자가 기존의 감사보고서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는 표본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의 경우 코스닥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이 기타의 경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동비율의 경우 코스피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간에 20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지표들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차이가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4.2.1 가설 1의 검증 결과

표 4은 지적·비지적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설 1을 위한 검증결과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동비율의 경우 비지적기업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고,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도 비지적기업이 유의하게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 증가율과 EVA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코스피기업의 차이검증결과

	t	Z
$DEPT_{it}$	1.312	1.628
$CURRENT_{it}$	-1.661*	-1.321*
$RNPS_{it}$	3.975***	3.364**
$GRNI_{it}$	-0.075	-1.234
EVA_{it}	0.458	0.523

표 5는 코스닥기업의 차이검증 결과이다. 부채비율은 코스피시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유동비율은 비지적기업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고, 매출액순이익률도 비지적기업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순이익증가율과 EVA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서 코스피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기업에서도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코스닥기업의 차이검증결과

	t	Z
DEPT _{it}	5.377	5.173
CURRENT _{it}	-4.499***	-5.211***
RNPS _{it}	-2.691***	-2.364**
GRNI _{it}	0.582	0.719
EVA _{it}	-1.524	-1.170

차이분석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전진:LR 방법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지적여부를 사용하였다.

코스피기업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유동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비율의 경우 비지적기업이,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는 지적기업이 더 큰 것으로 계수의 부호도 t 분석과 일치한다.

[표 6] 코스피기업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Vul_{it} = \alpha_1 + \beta_1 DEPT_{it} + \beta_2 CURRENT_{it} + \beta_3 RNPS_{it} + \beta_4 GRNI_{it} + \beta_5 EVA + \epsilon$$

변 수	코스피(지적=1, 비지적=0)		
	추정계수	Wald통계량	p
CURRENT _{it}	-0.005	4.140	0.042
RNPS _{it}	0.011	7.387	0.007
χ^2	21.101***		
분류정확도	76.6%		
Cox & snell R ²	0.173		

VULig : 기업 i의 내부회계제도 지적여부 지적받으면 1, 아니면 0

DEPTit : 기업 i의 t년도 부채비율

CURRENTit : 기업 i의 t년도 유동비율

NPSit : 기업 I의 t년도 매출액 수익비율

GRNIig : 기업 I의 t년도 순이익증가율

εig : 기업 I의 오차항

표 7은 코스닥기업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피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t 분석의 결과와 같은 방향의 결과를 얻고 있다.

[표 7] 코스닥기업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Vul_{it} = \alpha_1 + \beta_1 DEPT_{it} + \beta_2 CURRENT_{it} + \beta_3 RNPS_{it} + \beta_4 GRNI_{it} + \beta_5 EVA + \epsilon$$

변 수	코스닥(지적=1, 비지적=0)		
	추정계수	Wald통계량	p
DEPT _{it}	0.003	8.982	0.003
CURRENT _{it}	-0.002	4.461	0.035
χ^2	24.097***		
분류정확도	72.6%		
Cox & snell R ²	0.051		

VULig : 기업 i의 내부회계제도 지적여부 지적받으면 1, 아니면 0

DEPTit : 기업 i의 t년도 부채비율

CURRENTit : 기업 i의 t년도 유동비율

NPSit : 기업 I의 t년도 매출액 수익비율

GRNIig : 기업 I의 t년도 순이익증가율

εig : 기업 I의 오차항

4.2.2 가설 2의 검증 결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하여 지적·비지적기업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표 8은 재량적 발생액의 기술통계치이다.

표 9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간의 차이분석 결과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술통계에서 지적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일관적으로 크을 알 수 있다.

[표 8] 재량적발생액의 기술통계

DA		2005-200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코스피	지적	-0.1826	1.3878	0.5872	0.7.2
	비지적	-0.8325	0.725	-0.048	0.752
코스닥	지적	-8.873	2.389	-3.652	0.432
	비지적	-9.659	0.651	-4.504	0.537

이는 표 9의 t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9] 재량적 발생액 차이분석 결과

변 수	코스피 기업		코스닥 기업	
	t	Sig	t	Sig
DA	1.278	0.037	2.793	0.007

가설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강건성 확보를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재량적 발생액 차이분석 결과

변 수	코스피(지적=1, 비지적=0)		
	추정계수	Wald통계량	p
DAit	0.03	5.298	0.042
χ^2	19.281***		
분류정확도	63.3%		
Cox & snell R ²	0.185		

로지스틱분석과 t 분석을 통하여 가설2가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지적을 받는 기업과 지적을 받지 않는 기업을 비교하여 재무특성의 차이와 이익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실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간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설정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적인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회계부정이 발생하기 비교적 쉬운 지적기업과 표준보고를 한 기업의 발생액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이익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하였다.

연구의 결과 특성지표 중 코스피의 경우는 유동비율과 매출액순이익률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스닥의 경우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발생액의 경우도 지적기업이 비지적기업보다 통계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온 우리나라 내

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적을 받은 취약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취약기업의 특성과 회계시스템통제의 취약성에 따른 이익조정여부에 관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확장으로 기업 가치와 연결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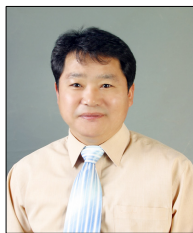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김기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감사보고서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2007.
- [2] 김효진·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장협연구 제54호, pp.176-204. 2006.
- [3] 권미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7.
- [4] 권수영·신현걸·정재연, “내부통제와 내부회계관리 제도”,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06-04 .2006.
- [5] 권수영·이재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국내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pp.115~145.2005.
- [6] 김창범, 변설원, 최중서, “스톡옵션 발행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 반응”, 대한경영학회지(제20권 제5호), 2007.
- [7] 서정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안) 제정에 관한 심포지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 [8] 신현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pp. 107~126. 2007.
- [9] 안영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 및 정책적 의의”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 [10] 이명근·김우영·김종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특성”,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2호, pp.169~175.2007.
- [11] 이상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해설” 대한세무협회 회계와 실무, 2005.
- [12] 조현우·유경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44호, p.119~145.2006.
- [13] Ashbaugh, H., D. Collins, and W. Kinney. The Discovery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Iowa, an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February).2005.
- [14] Bryan, S., and Lilien. Chatacteristics of Firms with Material Weakness in Internal Control: An Assessment of Section 404 of Sarbanes-Oxley.

- Working paper, Wake Forest University and College. 2005.
- [15] DeAngelo, L. Auditor Independence, Low-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 113-127.1981.
- [16] DeFond, M. L. and J. Jiambalvo. Incidence and Circumstances of Accounting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66(3), July, 643~655.1991.
- [17] Doyle, J. W. GE S. McVay. 2006a. Determinant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Utah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New York University. 2006.
- [18] Franco, G. D., Guan, Y., and Lu, Hai. The Wealth Change and Redistribution Effects of Sarbanes-Oxley Internal Control Disclosur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oronto.2005.
- [19] Ge, W., and S. McVay.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xley Act. Working paper. New York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ichigan. 2005.
- [20] Hogan, C. E.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2005.
- [21] Krishnan, J.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80: 649-675 .2005.

김진섭(Jin-Sep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학석사)
- 1997년 2월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 ~ 2006년 2월 : 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